

2026년 7월 첫째 주, 구역 공과

25 감사의 3단계

-신명기 16장 9~12절, 16~17절(구약 287)-

예배순서

• 찬송: 587/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570/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평소 ‘감사하네’라는 흔잦 말을 많이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예: 샤워할 때, 밥 먹을 때, 화장할 때, 커피 마실 때, 놀러 갈 때 등)

말씀 속으로

교회력에 따라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킨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신명기 본문에 등장하는 ‘칠칠절(七七節)’이 바로 이 맥추절이다. 오늘날 농경 사회가 아니고 보리와 밀을 직접 추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맥추감사절’의 핵심은 ‘맥추’가 아니라 ‘감사’에 있다. 한 해의 상반기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하반기 역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덕목, 행동의 기초가 된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알맹이가 빠진 종교 행위로 전락하고, 감사가 없는 사랑은 자기 자랑이나 가짜 사랑으로 변질되기 쉽다. 오늘 본문은 맥추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영적 원리 3단계를 잘 담고 있다.

1. 감사는 _____가 결정한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 16:12) 신명기는 가난한 정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모세의 고별 설교다. 유목 생활에서 정착 농경 생활로 삶의 양식이 업그레이드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애굽의 종살이 시절’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다. 왜냐하면 그 기억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이다. 감사는 무언가 좋은 일이 주어질 때 나오지만, 현실의 조건에만 반응하는 감사는 유통기한이 짧다. 흥해의 기적을 맛보고도 사흘 만에 원망을 쏟아낸 광야 1세대처럼, 기억의 깊이가 얕으면 작은

결핍 앞에서도 감사는 순식간에 불평으로 바뀐다. 반면 과거의 은혜와 고난의 깊이를 깊게 기억하는 자는 현실의 수확이 줄어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 성경 전체에 ‘기억하라(자카르, 르네모뉴오)’는 명령이 300회 이상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죄의 노예였던 과거와 나를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기억할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현실의 결핍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본질적인 감사가 터져 나온다.

2. 감사는 _____이 결정한다

모든 조건을 가졌으나 평민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 식음을 전폐한 아합왕이 있는 반면에,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찬미하고 기뻐한 사도 바울이 있다. 평생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으나 은둔과 중독 속에 쓸쓸히 죽은 거부 하워드 휴즈가 있는가 하면, 두 아들을 순교로 잃고도 9가지 감사를 고백한 손양원 목사가 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1년 농사가 완전히 끝난 시점이 아니다. 첫 소출인 보리와 밀을 겨우 거둔 후, 앞으로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혹독한 여름 건기를 버텨야 하는 ‘과정의 한복판’이다. 하반기의 불확실성이 가득한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하신다(15절). 여기서 ‘복 주실 것’은 미래형이다. 상반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메마른 건기에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해석’을 가지라는 의미다. 환경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안경을 쓸 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결핍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신 은혜로, 눈물과 한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재해석된다.

3. 감사는 반드시 _____이 동반되어야 한다

“...빈손으로 여호를 뵈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 16:16~17)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해석했다면, 마지막 단계인 ‘표현’으로 감사를 완성해야 한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쉽게 변질되고 사라진다. 하나님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다. 또한 이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본문은 자녀와 노비뿐 아니라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선포한다. 말로 따뜻함을 전하고, 물질을 나누며, 이웃을 대접하는 실천이 맥추절의 참된 정신이다. 감사는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다.

나눔과 기도

- 주일에 나눠준 감사 제목 50개를 써 봤는가? 그중 5개만 나눠보자.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 여름 교육 부서 사역,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자.